

# “공사하면서 환경평가하겠다니 답답”

## 단식 80일 넘긴 지율 스님

지율 스님의 단식이 1월 14일 현재 80일을 넘어섰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날짜다. 1월 12일 청와대 인근 찻집에서 만난 지율 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가는 모습이다. 무척 힘든 표정이었지만 스님은 답답하게 최근 심경과 근황을 털어냈다.

▲현재 건강은 어떤지?  
-며칠 전 아는 분이 한의사 한분을 모시고 왔었다. 그 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이미 몸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하더라.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니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다.

▲천성산 대책위 실무자들이 청와대쪽과 만났다고 하던데.  
-만난 것은 사실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청와대쪽의 인식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었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부산지역의 특정 환경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서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 특히 그 단체는 천성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정부와 노선재검토위를 만들어 줄 속으로 현 노선을 용인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천성산과 관련한 ‘민관합동점검팀’을 만들려고 한다.  
-천성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천성산대책위다. 천성산대책위에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단체에게 제

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처사다.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으면 소리 없이 일을 꾸미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처럼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시민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오전에 환경단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단체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해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회견은 원치 않는다. 2심에서 각각 결정이 났을 때, 뽀뽀이 흩어졌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다시 뭉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당분간 그냥 있어 줬으면 좋겠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속이 없는



상태로 단식을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찾아와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당분간은 천성산 문제에 대해 좀 더 정리를 할 생각이다. 우선은 ‘초록의 공명’ CD를 보급하는 것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도심사찰 성공비결 ‘주지 리더십’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심 신도시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사찰 관계자들은 물론 불교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돼 주목되고 있다.

현신(25.7%) 등의 답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신도시사찰(32.1%) 신도들이 신도시신앙(14.2%) 신도에 비해 주지의 불사현신을 중요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조씨는 비전제시, 역할모델링, 불사현신, 설법교화력, 개인적 배려 등 주지성과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돼 주목되고 있다.

조기룡 씨의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그것. 동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조씨는 주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도심신도시의 성장 원인을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주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범주와 사찰성장 관련 변수를 도출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에 따르면 △주지의 불사현신은 사찰의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신도의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무관(신도시사찰)하거나 부정적(신도시사찰)이다. △신도의 내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지가 신도에 모범을 보이는 것(신도시사찰)과 신도 개인에 대한 배려(신도시사찰)다. △신도의 실천 활동은 주지가 신도를 개별적으로 인종하고 격려할수록 활발해지며, 불사현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조기룡씨 박사논문서 제기

## 절 선택 중요요인 ‘법문과 법력’ ‘주지 모범’ 신도시수행에 큰 역할

한편 조씨는 이들 신도시사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며 신도시신앙(53.3%)의 신도들이 더욱 중시했다.

현 사찰의 성장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요구)에 대해서는 주지의 법문(56.7%), 교리공부(33.5%), 주지의 불사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살립니다”

## 독일 한미음선원, 청소년 대상 명상체험·선 법문

“물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주변의 물이 아름다운 모양의 물 결정체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최근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해일로 수많은 생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종교수업이 1월 10일 독일 한미음선원(지원장 혜진)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수업에 참석한 독일 카이스트 소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소속 10학년 학생 20여 명은 법문에서 불교의 세계로 흠뻑 빨려 들어갔다.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 전통다도법에 대한 혜진 스님의 설명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학생들은 명상도 하며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혜진 스님은 예토모 마사루 박사의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통해 물과 인간 삶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랑하는 마음의 파장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종교수업이 1월 10일 독일 한미음선원(지원장 혜진)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수업에 참석한 독일 카이스트 소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소속 10학년 학생 20여 명은 법문에서 불교의 세계로 흠뻑 빨려 들어갔다.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 전통다도법에 대한 혜진 스님의 설명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학생들은 명상도 하며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월정사 문화도량·웰빙타운 조성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종합 수행·문화도량 건설과 웰빙타운 조성 추진하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한다.

월정사는 월정사 구역에 종합 수행·신행·문화도량을 건설하고, 매표소 구역에 웰빙타운을 조성하며, 마을 구역에 생태·문화마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2005년 사업 총괄계획을 1월 13일 밝혔다.

교 출가 체험을 한다. 이를 통해 남방국가 사찰과의 자매결연도 꾀하고 있다.

또 한암 대종사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암 대종사 탄생·재일이 있는 올 5월 경 고승초정참선법회, 철야용맹정진 등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 월정사나 상원사에 시민선방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이 외에도 같은 달 가족과 함께 하는 제1회 평창군 월정사배 축구대회도 연다.

월정사는 종합 수행·신행 문화도량 건설을 위해 1월 내 종합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국고 확보 및 문화재 현상 변경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를 추진한다. 2월에는 노인요양시설 2006년도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연중 선원 건립 및 서법당 보수 불사도 계획하고 있다.

웰빙타운조성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과 생태·문화마을을 건립을 위해 올해 기초 용역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3월경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단기출가학교의 졸업생 2~30명과 남방불

9월 경에는 도제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 매년 7천만 원을 교구 스님뿐 아니라 지역 불자 자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지난해 주지 정법 스님이 공헌한 바 있는 전나무숲길 도로 포장을 제거한다. 수행과 생명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3월 경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나무숲길 생태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한편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사중스님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과 공문을 모아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윤이상 평화재단 2월 설립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1917~1995)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윤이상 평화재단이 2월 18일 설립된다.

윤이상 평화재단추진위원회는 1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예술의 전당에서 2월 18일 열리는 재단 발기인대회와 윤이상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발기인 대회를 마치는 대로 문화관광부에 재단 설립 절차를 밟은 뒤

3월경에 재단을 정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을 비롯해, 김민 서울대 음대 학장, 김중배 예술의 전당 사장, 박재규 경남대총장, 신인영 이화여대총장,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교회법 한겨레신문사장, 이종수 한국방송이사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소설가 황석영씨 등이 참석했다.

강신재 기자 thalishy@buddhapia.com

# 이시장 발언 사건 1심 기각 소송인단 ‘즉각 항고’

‘서울시 분향’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민사5단독 고종영 재판장은 “피고의 언행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무해야 할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08소송인단의 김재일 대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시민과 불자 108명은 지난해 7월 26일 이명박 시장의 분향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유철주 기자

# 평화포럼, 부시에 공개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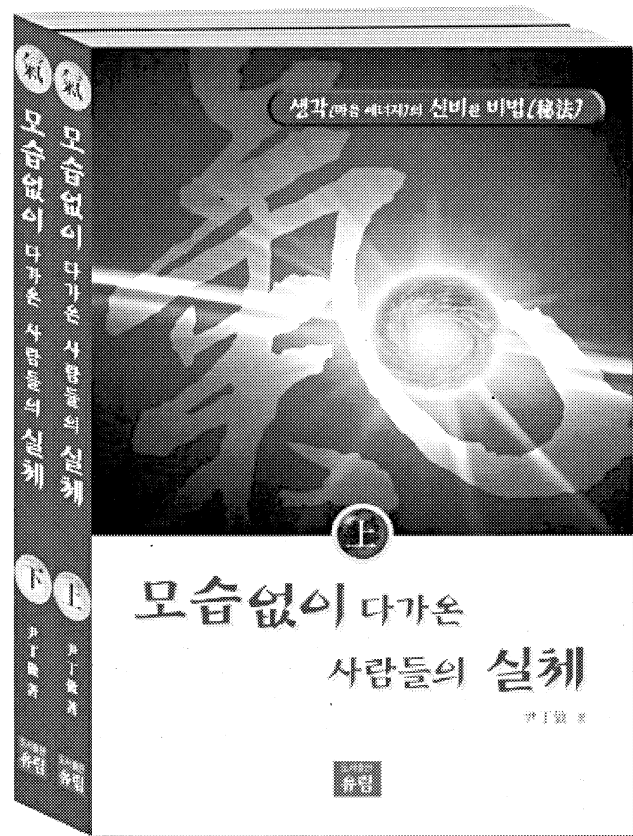
국내의 종교지도자들이 세계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평화포럼(이시장 강인룡이 1월 10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부시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 것과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이번 편지는 2004년 10월 21~23일 3일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종교평화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종교지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편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당 스님과 지구종교생태대표 월주 스님, 정토회 법문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의 종교지도자 117명이 서명했다.

유철주 기자

www.jinryeo.com



우리가 하는 생각(生覺)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 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자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 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이 광고는 진여수련원들의 수련비로 게재됩니다.

도서출판 슈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